

# 오가노이드 세계 전문가 ‘한곳에’… 현황·미래비전 등 논의

## 26일 ‘오가노이드 치료제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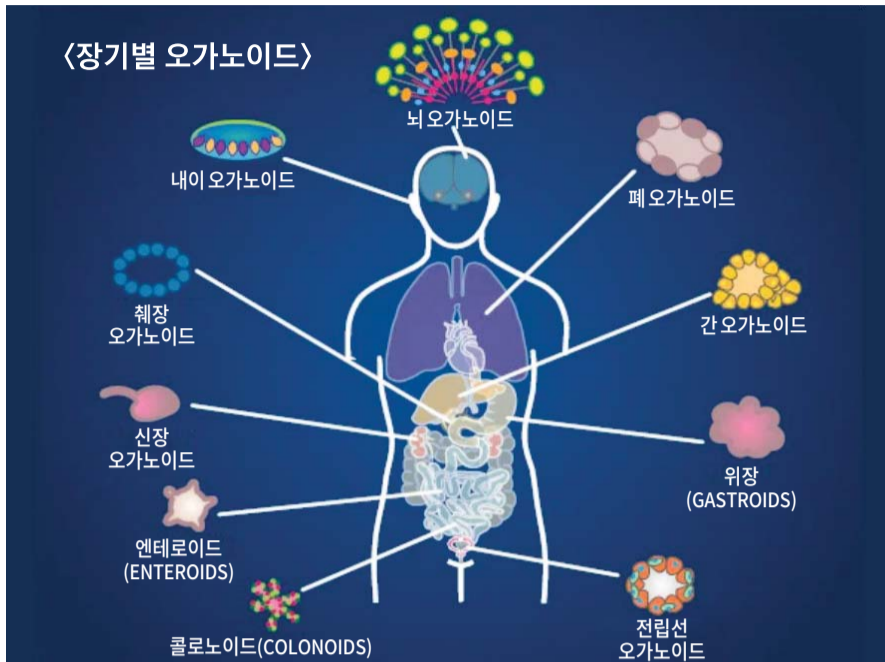
2023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국내외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갖는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미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을 개최한다. 충청북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의 개회사와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다.

첫 세션은 전 세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연구 현황을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세션에는 전 세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전문가들이 대거 강연자로 참석해 눈길을 끈다.

우선 로버트 콕스(Robert Coppes)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대학의료 센터 교수가 참석한다. 로버트 교수 연구팀은 침샘 조직으로부터 침샘 오가



CARM, 서울 KRX한국거래소 개최 네덜란드·일본 교수 등 강연 나서 대장암 임상시험 성공 경험 등 공유

韓 전문가 유종만·손미영 등 강연 국내 재생치료제 현황·전망 논의

노이드를 제작, 방사선으로 인한 침샘 기능 저하 마우스에 이식해 침샘분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 침샘 오가노이드는 현재 인체 임상이 진행 중이다.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 의과치과대학

(TMDU) 교수는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다. 류이치 교수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 지난해 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암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다음 날 퇴원했다. 오카모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 첫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임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국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현황과 전망을 공유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장 재생치

료제의 인체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는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줄기세포융합센터장이 ‘인간 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장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손 센터장은 지난 2018년 장 오가노이드를 실제 성인의 장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키워내는 ‘성숙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오가노이드 전문가다. 생명연이 만들어낸 장 오가노이드는 전 세계에서 성인의 실제 장기와 가장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재생치료제 기술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첫 강연은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이사가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의 주제로 맡는다. 미리어드 생명과학은 제약·바이오 특화 전략자문사로,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출범 유망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을 기획, 발굴하고 있다. 이어 임승원 전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기업공개(IP

O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임 전 부회장은 한국거래소 재직 당시 수백 개 바이오 기업의 IPO를 담당했던 전문가다.

마지막 강연은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이 맡는다. 그는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을 주제로 기술특례 상장에 필요한 조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이득주 회장은 “오가노이드 기술은 향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포럼이 오가노이드 분야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출범한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한국 재생의료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첨단재생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유관 섹터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며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 주소정보산업 등 국가통계 6종 개편 나서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 국가정책 필요 통계에 적시제공

국가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총 6종의 통계가 올해 개선 작업을 거쳐게 됐다. 필수요 지역 현황과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등이 대상이다.

통계청은 2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통계개발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종의 통계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산업 현황(보건복지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소정보산업 통계(행정안전부) ▲해양범죄통계(해양경찰청) ▲필수의료지역현황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연안어업실태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다.

국가통계개발사업은 국가 주요정책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예산, 통계 분야 전문기술 등을 지원해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통계 품질을 개선한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과 과기정통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통계청 국정과제 지원사업인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이다. 해당 부처에서 개발·개선을 요청해 올해 사업대상 과제로 뽑혔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은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 구현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한다. 해당 부처에 기존 통계는 정책활용안내서를,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는 개발·개선

기획서를 제공하는 등 총 120개 국정과제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60개씩 분석하고 있다.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통계가 개발·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가 국가통계개발사업으로 신청하면 해당 통계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고품질의 통계를 제때 제공해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에 필요한 고품질의 통계가 성공적으로 개발·개선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초브랜드 매출비중 16%→22%로 성장

>> 1면 ‘K뷰티, 브랜드 지형변화’서 계속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 증가해 338억원이다. 이 중 해외 매출은 1463억원이다.

최근 3년간의 클리오 해외 매출을 살펴보면 2021년 1296억원, 2022년 1345억원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 색조 브랜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기

초 브랜드의 비중이 2022년 16%에서 22%로 늘었다. 브랜드별로 구분하면 ‘구달’의 비중은 2022년 11%에서 18%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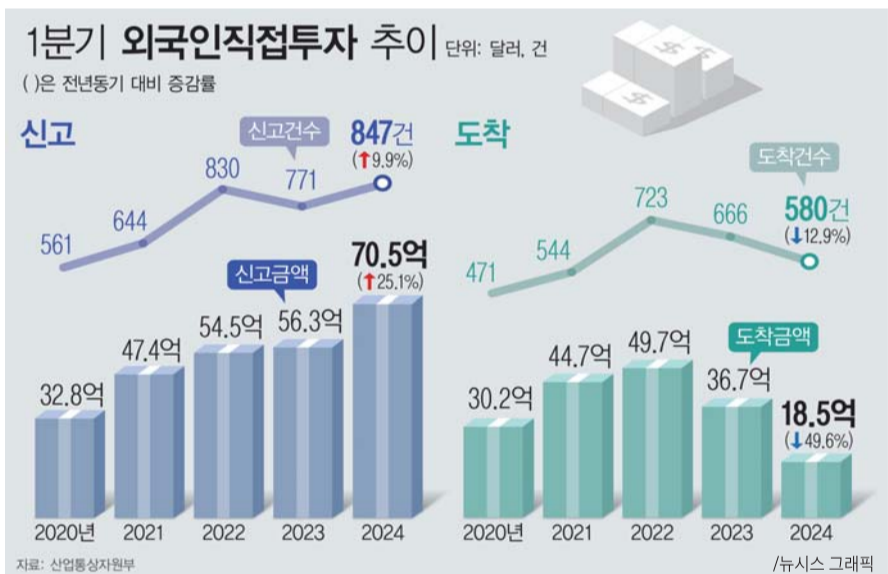
무엇보다 구달은 해외 시장에서도 기초 브랜드와 함께 고성장을 이뤘다. 미국 시장에서 2023년 매출은 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함과 동시에 구달 ‘청굴 비타C 세럼’이 판매 호조를 보였다.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구달 청굴 비타C 제품

군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 클리오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외 시장에서 기초 제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클리오는 구달 제품 확대, 저자극 더마 브랜드 더마토리 육성 등 브랜드 다각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현지 맞춤형 제품이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 공략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외국인직접투자 70.5억 달러… 25% 증가

산업부, 역대 1분기 중 최고 기록

올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달러)에 이어 올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56.3억달러)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연간 FDI 중 1분기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호실적

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FDI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9.2% 대폭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달러, +49.2%), 항공(3.4억달러, +69.5%) 등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달러, +34.3%) 등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7.2억달러), 유럽연합(5.7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